

환경부-카카오, 탄소중립 실천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

- 카카오를 활용한 탄소중립 실천 운동, 탄소중립 포인트와 카카오페이 연계 등

환경부(장관 한화진)와 (주)카카오(대표이사 정신아)는 4월 26일 카카오 판교아지트(성남시 분당구 소재)에서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장관과 권대열 카카오 씨에이(CA)협의회 이에스지(ESG)위원장이 참석한다.

이번 업무협약으로 환경부와 카카오는 △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한 대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운동(캠페인) 추진, △카카오 직원(건물)의 탄소중립 실천확산을 위한 ‘탄소중립 포인트제*’ 참여, △탄소중립 포인트와 카카오페이 연계, △자전거 관련 국민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상호협력할 계획이다.

*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 실천활동*을 할 경우 현금처럼 사용하는 포인트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 1월에 시작된 제도로 텀블러 이용 등 10개 항목에 대하여 포인트 지급(1인당 최대 7만원/년 지급)

첫 번째, 국민들의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뉴 중 사회공헌 기부 플랫폼인 ‘카카오같이가치’ 및 카카오톡 광고창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는 운동(캠페인)을 펼친다.

두 번째,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근무하는 직원 4천여 명과 입주 매장이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한다.

세 번째, 탄소중립 포인트와 카카오페이 연계를 통해 탄소중립 포인트제의 대국민 편의성을 개선한다. 카카오페이머니로도 적립된 탄소중립 포인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카카오 간편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한다.

※ 기존에는 계좌 지급, 그린카드 에코머니포인트 지급 등 2가지로만 운영해 왔음

네 번째,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카카오티(T)바이크와 연계하여 국민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.

<카카오와 협력 방안(이미지 예시)>

카카오톡 같이가치	카카오페이	카카오 바이크

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“국민 필수 앱인 ‘카카오’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필수 제도인 ‘탄소중립 포인트제’의 협력을 통해 국민실천 운동(캠페인)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포인트를 카카오페이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편의성을 높ی겠다”라며, “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고 확산시켜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붙임 협약식 개요. 끝.

담당 부서	환경부 기후적응과	책임자	과 장	김지수 (044-201-6950)
		담당자	사무관	이민영 (044-201-6953)

□ **추진 배경**

- 탄소중립 생활실천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, 실천행동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협약 체결

□ **협약 개요**

- (일 시) '24. 4. 26.(금), 10:00 ~
- (장 소) 카카오 판교아지트 2층 어피치홀(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)
- (참 석 자) 환경부(한화진 장관), (주)카카오(CA협의회 권대열 ESG위원장)
- (주요 협약내용) ①대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유도 캠페인 및 홍보
②카카오 직원(건물) 탄소중립 실천 확산, ③탄소중립포인트 대국민 서비스 개선, ④자전거 이용 활성화

□ **세부 일정**

시 간		주요 내용	비고
10:00~10:05	5'	■ 사전환담	사전환담장
10:05~10:10	5'	■ 개회 및 내빈 소개	
10:10~10:20	10'	■ 협약서 주요내용 설명	
10:20~10:25	5'	■ 인사말씀	환경부장관 카카오 ESG위원장
10:25~10:30	5'	■ 협약서 서명식	
10:30~10:40	10'	■ 기념 촬영 및 폐회	